

간호대학생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성희¹, 변은경^{2*}

¹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²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Intention of Childbirth

Sung Hee Park¹, Eun Kyung Byun^{2*}

¹Department of Nursing, Busan Women's College

²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결혼관, 자녀관, 출산양육동기, 출산의지의 정도를 알아보고,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출산의지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B시의 2개 대학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은 2019년 5월 1일부터 30일까지였고, 최종 24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독립 t-검증, 일원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결혼관, 자녀관, 출산양육동기, 출산의지의 정도는 결혼관 평균 3.39±.38점, 자녀관 평균 2.72±0.39점, 출산양육동기 평균 2.73±0.78점, 출산의지 평균 3.12±0.48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지의 차이에서 연령(F=6.002, p=.003)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결혼관, 자녀관, 출산양육동기와 출산의지와 상관계수에서 출산의지는 결혼관 중 보수적 결혼관(r=.207, p=.001), 적극적 결혼관(r=.226, p<.001), 도구적 결혼관(r=.181, p=.004), 양육동기(r=.283, p<.001)와 정적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출산의지는 결혼관 중 소극적 결혼관(r=-.292, p<.001), 자녀관(r=-.226, p<.001)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β =.212, p<.001), 결혼관(β =-.318, p<.001), 출산양육동기(β =.227, p=.006)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0.2%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awareness about marriage, the value of children, and the motivation for childrearing influences childbirth will in nursing student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May 1 to May 30, 2019, and 248 data samples were finally used for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2.0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s, ANOVA, Scheffe's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all calculated. The average of awareness about marriage was 3.39±.38, the average of the value of children was 2.72±0.39, the average motivation of childrearing was 2.73±0.78 and the average of childbirth will was 3.12±0.48. The childbirth will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 (F=6.002, p=.003). Among the awareness about marriage, conservative view on marriage(r=.207, p=.001), active view on marriage(r=.226, p<.001), instrumental view on marriage(r=.181, p=.004), and motivation of childrearing(r=.283, p<.001) showed positive correlation ed with childbirth will. Childbirth will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assive view on marriage (r=-.292, p<.001), and the value of children (r=-.226, p<.001). The factors affecting childbirth will of the study subjects were age(β =.155, p=.007), passive view on marriage(β =-.383, p<.001), motivation of childrearing (β =.315, p<.001),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23.6%. According to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effects of developing an intervention program and applying this program to improve the decisions of nursing students concerning marriage and having children.

Keywords : Awareness about Marriage, Values of Children, Motivation of Childrearing, Childbirth Will, Nursing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Eun Kyung Byun(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email: bekr@eagle.kit.ac.kr

Received September 11, 2019

Revised October 14, 2019

Accepted January 3, 2020

Published January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발달단계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성숙해지며 이성과의 친밀감을 구축해 나가는 시기로 결혼에 대한 욕구도 구체화되는 예비 부모세대라고 할 수 있다[1-2].

그러나 최근 대학생들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출산에 대해서도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운 경험이라고 하였다[3-4]. 또한 여학생들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개인의 자아성취 욕구를 위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반드시 낳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생각하여 무자녀를 선호한다고 하였다[5]. 결혼 및 자녀, 가족을 중시하는 가족가치관이 낮고, 자녀출산의지도 낮았으며,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남학생보다 높았다[6-7]. 특히 고학력의 여성들은 자기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이로 인해 출산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8].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왔으며,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으나 출산율 저하는 여전하다. 출산율의 저하에 대한 원인을 정책적 요인, 사회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가치관 변화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저출산 원인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 및 교육과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으며, 가치관의 변화 중에서 출산과 관련된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9-10].

가치관 형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건전하고 건강한 가치관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다[11]. 또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은 사회적 여건·분위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가치관이 변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 번 형성된 가치관은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12] 미래 결혼의 예비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에 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은 인간의 가치관, 행동을 의도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것[13]을 바탕으로 여성간호학을 수강한 간호대학생은 출산 및 출산과정의 이해, 생명존중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임신 및 출산

에 대한 지식을 가진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결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및 출산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미래의 출산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출산은 출산인식을 가진 후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출산행동이 나타나고 출산의도는 출산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따라서 출산의지는 선행연구에서 출산의 여부나 자녀 수에 대한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 가족적, 경제적, 정책적 측면을 포함한 도구[15]를 가지고 확인하고자 한다.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관이 있다. 결혼관은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을 말하는 것으로 가치관의 변화는 배우자 선택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을 변화시킨다[16]. 결혼관은 출산의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5], 결혼의 의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학생은 출산의지가 강했으나 결혼에 대해 현대적 가치관을 가질수록 출산의지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예비 부모들에게서 결혼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7]으로 긍정적 가치관은 자녀출산에 동기가 되고, 부정적 가치관은 출산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친화적인 자녀가치관 정립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8]. Lee 등[19]의 연구에서 결혼관, 자녀관, 가족주의관 가치관이 가장 낮은 '개인중시형' 대학생은 희망자녀수나 계획자녀수가 가장 낮고 저출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대생은 이상적, 현실적 자녀수와 자녀가치관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자녀가치관을 높게 인식할수록 기대한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8].

출산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자녀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약화로 나타났는데[10], 이를 Lee[20]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인 출산 양육 동기의 약화라고 생각하며, 저출산의 해결대안으로 가치관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하였다. 선행연구를 보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희망자녀 수가 적어지고 출산 양육 동기가 낮아졌다[21]. 또한 연령이 자녀 출산 희망과 출산 양육 동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22-23], 유자녀 취업여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 선행연구를 통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가치관의 변화가 출산의지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예비 출산과 양육자가 될 여대생의 출산의지와 가치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교육 및 가치관 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의 예비 여성으로 여성간호학의 수장으로 출산과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출산의지의 정도를 확인하고,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관의 정립 및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목적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의 결혼관, 자녀관, 출산 양육 동기, 출산의지의 정도를 알아보고,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출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결혼관, 자녀관, 출산 양육 동기, 출산의지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지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결혼관, 자녀관, 출산 양육 동기와 출산의지와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의 2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여성간호학을 수강한 간호여대생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의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11개로 하였을 때 필요한 대상자수는 178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9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270부를 배부하여 255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7부를 제외한 24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결혼의식

결혼관은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으로[15] 본 연구에서는 Kim 등[24]이 제작한 미혼여성들의 결혼 및 가족의식 조사도구를 Lee와 Kim[25]이 수정하여 재구성한 설문지를 Yeol[26]이 사용한 도구이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낭만적 결혼관(예: 결혼은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일) 5문항, 소극적 결혼관(예: 내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기 힘들다) 6문항, 보수적 결혼관(예: 결혼하기 좋은 나이는 정해져 있다) 3문항, 배타적 결혼관(예: 나는 혼자서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 수 있다) 2문항, 적극적 결혼관(예: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2문항, 도구적 결혼관(예: 출산을 생각한다면 결혼은 빨리 하는 것이 좋다)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이 의미하는 결혼가치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Yeol[26] 연구에서 Cronbach's $\alpha=.6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0$ 이었다.

2.3.2 자녀관

자녀관은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말하는 것[27]으로, 본 연구에서 Chung과 Chang[28]이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한 자녀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녀의 필요성, 출산시기, 육아지원, 육아에 대한 부부 책임, 저출산 이유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관에 개방적인 성향, 즉 자녀에 대해 자유로운 사고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Chung과 Chang[2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2$ 이었다.

2.3.3 출산 양육 동기

출산 양육 동기는 여성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려는 동기의 반응을 의미하며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가치로 분류된다[29]. 이를 측정하기 위해 Leel[20]가 개발한 자녀 필요성, 노후의지, 자아성취, 가족형성, 대리만족, 보람, 행복, 외로움에 대한 8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Leel[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1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9$ 이었다.

2.3.4 출산의지

출산의지는 향후 자녀의 출산에 대한 자신의 의사나 태도, 욕구 또는 생각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13] 본 연구에서는 Lee와 Hong[14]이 선행연구의 설문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 후 재구성한 22문항의 도구 중 6개의 개별문항을 제외하고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개인적 측면 6문항, 가족적 측면 3문항, 경제적 측면 4문항, 정책적 측면 3문항 총 16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와 Hong[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80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77$ 이었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결혼관, 자녀관, 출산양육 동기, 출산의지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지의 차이는 t-검증,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결혼관, 자녀관, 출산양육 동기, 출산의지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고,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대상자는 여학생 248명으로 연령은 22세 이하가 110명(44.4.5%), 23-25세 107명(43.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이 125명(50.4%), 4학년이 123명(49.6%)로 나타났고, 종교는 '없다'가 166명(66.9%), '있다'가 82명(33.1%)으로 나타났다. 형제 수는 1명이 141명(56.9%)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수준은 보통이 200명(88.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과 만족도는 보통이 198명(79.8%)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에 대한 흥미는 만족이 145명(58.5%)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 22	110	44.4
	23-25	107	43.1
	≥ 26	31	12.5
Grade	3rd	125	50.4
	4th	123	49.6
Religion	Had	82	33.1
	Had not	166	66.9

Number of siblings	None	21	8.5
	1	141	56.8
	2	64	25.8
	≥3	22	8.9
Economic status	High	10	4.0
	Moderate	220	88.7
	Low	18	7.3
Satisfaction of major	Good	25	10.1
	Moderate	198	79.8
	Not good	25	10.1
Interest in class	Good	145	58.5
	Moderate	93	37.5
	Not good	10	4.0

3.2 대상자의 결혼관, 자녀관, 출산양육동기, 출산의지의 정도

대상자의 결혼관, 자녀관, 출산양육동기, 출산의지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결혼관 평균은 3.39±.38점, 결혼관 중 낭만적 결혼관 평균은 4.06±.56점, 소극적 결혼관 평균은 3.27±.73점, 보수적 결혼관 평균은 2.65±.74점, 배타적 결혼관 평균은 3.71±.79점, 적극적 결혼관 평균은 3.43±.77점, 도구적 결혼관 평균은 3.42±.84점으로 나타났다. 자녀관 평균은 2.72±0.39점, 출산양육동기 평균은 2.73±0.78점, 출산의지 평균은 3.12±0.48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Awareness about Marriage, Values of Children, Motivation of Childrearing, Childbirth Will (N=248)

Variable	M±SD	Min	Max
Awareness about marriage	3.39±.38	2.40	4.70
Romantic view on marriage	4.06±.56	2.40	5.00
Passive view on marriage	3.27±.73	1.33	5.00
Conservative view on marriage	2.65±.74	1.00	5.00
Exclusive view on marriage	3.71±.79	1.00	5.00
Active view on marriage	3.43±.77	1.00	5.00
Instrumental view on marriage	3.42±.84	1.00	5.00
Values of children	2.72±0.39	1.86	3.71
Motivation of childrearing	2.73±0.78	1.00	5.00
Childbirth will	3.12±0.48	1.00	4.38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 자녀관, 출산양육동기 및 출산의지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은 형제 수(F=2.870, p=.037), 수업에 대한 흥미(F=3.079, p=.048)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관은 종교(F=-2.436, p=.016), 경제수준(F=3.680, p=.027), 수업에 대한 흥미(F=5.983, p=.003)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 사후검증에서 경제수준은 중 집단이 상 집단 보다, 수업에 대한 흥미에서도 보통의 집단이 좋음의 집단 보다 자녀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양육동기는 경제수준($F=4.767$, $p=.009$), 수업에 대한 흥미($F=6.336$, $p=.0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에서 경제수준은 상의 집단이 중 집단 보다, 수업에 대한 흥미에서도 좋음의 집단이 보통의 집단 보다, 좋음의 집단이 좋지 않음의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지는 연령($F=6.002$, $p=.003$)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에서 26 세 이상의 여학생이 22세 이하의 여학생보다 출산의지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결혼관, 자녀관, 출산양육동기, 출산 의지와외의 관계

대상자의 결혼관, 자녀관, 출산양육동기와 출산의지와 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출산의지는 결

혼관($r=.343$, $p<.001$), 출산양육동기($r=.283$, $p<.001$)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결혼관 중 보수적 결혼관 ($r=.207$, $p<.001$), 적극적 결혼관($r=.226$, $p<.001$), 도구적 결혼관($r=.181$, $p<.001$)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출산의지는 결혼관 중 소극적 결혼관($r=-.292$, $p<.001$), 자녀관($r=-.226$, $p<.0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5 대상자의 결혼관, 자녀관, 출산양육동기가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결혼관, 자녀관, 출산양육동기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결혼관 중에 소극적 결혼관, 보수적 결혼관, 적극적 결혼관, 도구적 결혼관, 자녀관, 출산양육동기와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령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가 .414-.983로 0.1이상

Table 3. Difference of Childbirth Wil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Awareness about marriage		Values of children		Motivation of childrearing		Childbirth will	
		M±SD	t/F(p) Scheff's	M±SD	t/F(p) Scheff's	M±SD	t/F(p) Scheff's	M±SD	t/F(p) Scheff's
Age	≤ 22a	3.42±0.37	.895 (.410)	2.72±0.40	.865 (.422)	2.74±0.83	.034 (.967)	3.02±0.48	6.002 (.003) a<c
	23-25b	3.37±0.38		2.75±0.41		2.72±0.78		3.16±0.48	
	≥ 26c	3.33±0.44		2.64±0.30		2.76±0.64		3.33±0.38	
Grade	3rd	3.39±0.37	-.046 (.963)	2.71±0.38	-.301 (.764)	2.75±0.79	.469 (.640)	3.09±0.51	-1.088 (.278)
	4th	3.39±0.40		2.73±0.41		2.71±0.77		3.15±0.45	
Religious	Had	3.40±0.38	.853 (.394)	2.64±0.41	-2.436 (.016)	2.84±0.85	1.502 (.134)	3.11±0.50	-.273 (.785)
	Had not	3.36±0.40		2.76±0.38		2.68±0.75		3.13±0.44	
Number of siblings	None	3.23±0.32	2.870 (.037) -	2.80±0.35	1.887 (.132) -	2.43±0.52	1.654 (.178) -	2.95±0.38	2.599 (.053) -
	1	3.36±0.37		2.76±0.42		2.71±0.79		3.10±0.51	
	2	3.50±0.38		2.67±0.34		2.85±0.81		3.14±0.43	
	≥ 3	3.50±0.48		2.58±0.39		2.80±0.84		3.34±0.49	
Economic status	Higha	3.32±0.42	.192 (.825)	2.43±0.46	3.680 (.027) a<b	3.46±0.90	4.767 (.009) a>b	3.34±0.41	1.389 (.251)
	Moderate b	3.39±0.39		2.74±0.39		2.69±0.78		3.12±0.48	
	Lowc	3.39±0.34		2.63±0.30		2.77±0.59		3.02±0.49	
Satisfaction of major	Good	3.49±0.52	1.087 (.339) -	2.81±0.43	2.126 (.122) -	2.80±0.82	2.090 (.126) -	3.07±0.54	.145 (.865) -
	Moderate	3.37±0.37		2.70±0.38		2.76±0.76		3.13±0.46	
	Not good	3.41±0.33		2.84±0.44		2.43±0.92		3.12±0.61	
Interest in class	Gooda	3.43±0.39	3.079 (.048) -	2.65±0.40	5.983 (.003) a<b	2.86±0.82	6.336 (.002) a>b, a>c	3.12±0.49	.233 (.792) -
	Moderate b	3.31±0.37		2.82±0.35		2.60±0.67		3.10±0.48	
	Not goodc	3.50±0.41		2.81±0.44		2.13±0.83		3.12±0.48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wareness about Marriage, Values of Children, Motivation of Childrearing, Childbirth Will (N=248)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r(p)									
Awareness about marriage(1)	1									
Romantic view on marriage(2)	.602**	1								
Passive view on marriage(3)	.627**	.026	1							
Conservative view on marriage(4)	.516**	.162*	-.011	1						
Exclusive view on marriage(5)	.340**	.144*	.393**	-.163*	1					
Active view on marriage(6)	.561**	.445**	-.001	.437**	-.122	1				
Instrumental view on marriage(7)	.515**	.343**	.006	.430**	-.183**	.744**	1			
Values of children(8)	-.170**	-.144*	.237**	-.452**	.392**	-.373**	-.397**	1		
Motivation of childrearing(9)	.172**	.171**	-.263**	.453**	-.376**	.387**	.354**	-.719**	1	
Childbirth will(10)	.343**	.055	-.292**	.207**	.091	.226**	.181**	-.226**	.283**	1

* p>.05, ** p>.01

Table 5. Affected Factors of Problem Solving Ability (N=248)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503	.453		3.206	.002
Age	.038	.010	.212	3.716	<.001
Awareness about marriage	.400	.073	.318	5.489	<.001
Values of children	-.002	.100	-.001	-.018	.986
Motivation of childrearing	.140	.050	.227	2.770	.006

Adj R²=.202, F=16.584(p<.001)

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41-2.086로 모두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1.897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출산의지에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F=16.584, p<.001), 수정된 결정계수(R²)는 .202로 설명력은 20.2%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β =.212, p<.001), 결혼관(β =.318, p<.001), 출산양육동기(β =.227, p=.006)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출산의지 향상을 교육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출산의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출산의지의 정도는 3.12±0.48점으로 나타나 도구에 차이가 있어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75점으로 나타난 결과[30] 보다 낮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21점으로 나타

난 결과[15] 보다도 낮았다. 이는 보건의료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출산은 여성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의 어려움으로 나타난 결과[31]와 같이 간호여대생은 간호직에 대해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의식이 강하고 평생직장으로 인식하고[32], 3, 4학년이 취업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에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간호학의 수업이 이루어진 3, 4학년 여대생 대상으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고, 여성간호학 수업과 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은 형제 수, 수업에 대한 흥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결혼관에서 성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33]와 성별과 부모의 결혼생활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34]와 상이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관은 종교, 경제수준, 수업에 대한 흥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성별, 학년, 취업여부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28]와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양육동기는 경제수준, 수업에 대한 흥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 소득,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낸 결과[21]와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 자녀관, 출산양육동기의 차이를 알아보는 반복연구를 통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특성을 고려하여 결혼관, 자녀관, 출산양육동기의 가치관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지는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출산의지에 대한 도구에 차이가 있어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Lee[35]의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연령이 많을수록 출산인식이 높게 나타난 결과[35]와 유사하여 연령이 많을수록 출산인식과 출산의지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Lee와 Hong[15]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출산의지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20-24세가 출산의지가 가장 높아서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Back과 Ryu[36]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0-34세가 25-29세 보다 출산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출산의지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여성간호학을 수강한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선행 연구한 결과는 없어 여성건강간호학 수강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수강 전후와 여성건강간호학 수강여부에 따른 출산의지 정도를 비교하여 여성간호학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교육 및 프로그램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고학력의 여성들은 자기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이로 인해 출산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10]와 직업의식이 출산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34]를 통해 사회적 직업적 성취와 전문직으로서의 자기실현을 하고자 하는 간호여대생의 출산의지의 향상은 사회진출이 많은 전문직 여성들의 출산의지를 높이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다양한 고학력과 전문직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출산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접근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출산의지는 결혼관 중 보수적 결혼관, 적극적 결혼관, 도구적 결혼관과 출산양육동기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결혼관 중 소극적 결혼관, 개방적인 자녀관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결혼의지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은 결과[37]와 결혼관이 긍정적일수록 출산의지가 높은 결과와 유사하다[36,38]. 또한 결혼인식과 출산 관련 인식은 미래결혼행위(계획자녀수)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38]와 유사하다. 출산행위는 결혼 및 자녀인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하다면 자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고 한다[39]. 따라서 대학생의 출산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관과 자녀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가치관 변화를 위한 교육 및 중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결혼관, 출산양육동기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이 출산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39]와 유사하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결혼의지가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37]와 결혼가치관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친 결과[14]와 유사하다. 또한 출산양육동기가 출산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예비부모역할에 출산의식, 낭만적 결혼관과 소극적 결혼관에 영향을 미친 결과[30]와 유사하다.

연령에 관련하여 예비 부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녀를 출산과 양육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관 형성이 필요하다. 가치관은 개인의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변화할 수 있어[39], 결혼 및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교육이 결혼을 준비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초기부터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노력이 요청된다. 또한 긍정적인 결혼관이 출산의지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어 가족의 중요성을 심어줄 교과과목,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양과목[40] 및 프로그램의 운영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산의 주체가 여성이지만 결혼관, 자녀관은 남학생, 여학생의 가치관 형성을 바탕으로 결혼을 통해 부부의 가치관으로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짐으로 남, 여 대학생에게 긍정적인 결혼 및 자녀 가치관 형성과 출산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실현가능한 경제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2개 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여성간호학을 수강한 3, 4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에 대한 확대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여대생의 출산의지의 정도와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출산의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

상자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결혼관, 출산양육동기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0.2%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간호여대생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는 반복연구와 여성간호학 수강 전후 출산의지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출산의지를 향상시키는 교육 및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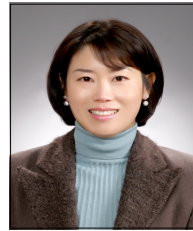
References

- [1] Y. J. Lee, "A study of the parenthood motivation, perceptions of becoming a parent, and confidence about parental role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92, pp. 1-18, 2015.
- [2] O. B. Jung, J. H. Im, S. H. Jung, K. E. Kim, Y. J. Park, "Attachment to parents motives for parenthood and perceptions of parental roles amongst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a working model",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15, no. 4, pp. 67-91, 2008.
- [3] H. G. Kim, J. Y. Seo, "Factors impacting on the marital and childbearing willingn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Institute for Korean Culture*, vol. 52, pp. 175-206, 2012.
- [4] H. J. Kwon, Y. J. Kim, S. J. Kwon, S. A. Park, Y. M. Ahn, G. S. Oh, K. S. Le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childbirth as a challeng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1, pp. 175-200, 2011.
- [5] H. Y. Lee, "Analyzing determinants of Korean woman's birth behavior",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vol. 11, no. 1, pp. 99-132, 2011.
DOI: <http://dx.doi.org/10.35224/kapd.2011.11.1.004>
- [6] S. Y. Lee, D. A. G. Hong, "The study on the idea of marriage and childbirth will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9, no. 2, pp. 3-28, 2014.
- [7] H. S. Kim, J. S. Park, E. J. Jo, "The perceptions of marriage and childbirth of health care field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5, no. 2, pp. 131-146, 2011.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1.5.2.131>
- [8] Y. E. Kim, J. Y. Ha, "An understanding of low fertility examined through childbirth and parenting, value of child of college wome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 8, no. 3, pp. 121-140, 2016.
- [9] S. S. Lee, "A study on impact of the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26, no. 2, pp. 95-140, 2006.
- [10] T. H. Kim, "Personal value changes and low fertility",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 102, pp. 16-24, 2005.
- [11] S. A. Hong, H. R. Yoon, "A study on family values influencing on university students' childbirth inten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6, no. 3, pp. 197-208, 2012.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2.6.3.197>
- [12] H. Y. Shin, E. R. Bang, "Youth perception on childbirth & marriage",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5, no. 3, pp. 95-113, 2008.
- [13] W. S. Jung, S. N. Lee, S. J. Lee, "Morden education psychology", Gyoyug Publishers, pp. 226-273, 1983.
- [14] Y. A. Park., "The study on the effective element of pregnancy will", Doctoral dissertation, Hansung University, 2013.
- [15] S. Y. Yoon, "An analysis on the fertility rate and women's employment of lower fertility household"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3, no. 2, pp. 159-166, 2005.
- [16] K. S. Kim, S. M. Lee, "Marriage-ideology reflected on the view of marriage of unmarried man and women",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 no. 1, pp. 27-43, 1998.
- [17] M. S. Yang, J. D. Schvaneltd, "A study on the values of marriage, child and sex role betwee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II",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vol. 10, pp. 265-282, 2015.
- [18] T. H. Kim, "A scheme for prosocial marriage and child values of Korean primary and high school student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 124, pp. 15-24, 2007.
- [19] Y. S. Lee, H. N. Kim, J. W. Le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childbirth according to the types of family values",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3, no. 2, pp. 109-140, 2019.
- [20] M. R. Lee, "Effects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ies on unmarried women's motivation for childbirth and childrearing",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4, no. 3, pp. 75-96, 2009.
- [21] J. W. Lee, "A pathway analysis on determination of intention of second childbirth in working women with a child: focused on value facto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0, no. 1, pp. 323-351, 2009.
DOI: <http://dx.doi.org/10.16999/kasws.2009.40.1.323>
- [22] Y. B. Lee, S. H. Lee, "The impact of child care service on the fertility decision of married women",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vol. 9, no. 2, pp. 95-113, 2004.
- [23] C. H. Jung, "The characteristics of couples by their desires for a second child",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3, no. 3, pp. 25-33, 2005.
- [24] H. Y. Kim, B. Y. Seon, S. D. Kim, "A study on late marriage and low fertilit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vol. 16, pp. 1-277, 2009.

- [25] B. R. Lee, S. O. Kim,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consciousness of marriage and childbirth",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7, no. 2, pp. 155-175, 2012.
- [26] S. N. Yeo, "The effect of awareness about the high school student's marriage and childbirth to pre-parent's role", Dongshin University, Jeollanam-d o, 2014.
- [27] Y. H. Ju, E. S. Jung, M. S. Shim, "The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value on marriage, children and sexual attitud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9, pp. 267-278, 2013.
DOI: <http://dx.doi.org/10.14400/JDPM.2013.11.9.267>
- [28] M. R. Chung, Y. H. Chang, "A study on the conception of the values of marriage, having child & job of university students and it's variables", *Education Research*, vol. 41, pp. 1-17, 2007.
- [29] L. W. Hoffman, M. Hoffman,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in James T. Fawcett(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opulation*. New York: Basic Books, pp. 19-76, 1973.
- [30] E. J. Jo, E. S. An, "Influence of awareness about marriage and childbirth on pre-parent's role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1, pp. 208-217, 2017.
DOI: <http://doi.org/10.5762/KAIS.2017.18.11.208>
- [31] H. S. Kim, J. S. Park, E. J. Jo, "The perception of marriage and childbirth of health care fields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5, no. 2, pp. 131-146, 2011.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1.5.2.131>
- [32] J. W. Oh, Y. S. Moon, I. S. Park, "A study of nurses' working stress, child-rear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10, pp. 469-481, 2013.
DOI: <http://dx.doi.org/10.14400/JDPM.2013.11.10.469>
- [33] N. J. Kim, S. J. Ko,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marriag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4, pp. 178-185, 2018.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8.19.4.178>
- [34] K. H. Shon, N. H. Kim, E. S. Lee, "The study on the family strength, idea of marriage and childbirth will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9, no. 1, pp. 719-728, 2019.
DOI: <http://dx.doi.org/10.21742/AJMAHS.2019.01.72>
- [35] B. R. Lee,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consciousness of marriage and childbir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2012.
- [36] M. J. Baek, H. S. Ryu, "Factors influenci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tention of childbirth",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4, no. 4, pp. 2001-2012, 2012.
- [37] E. J. Park, H. M. Chun, "The effect of vocational consciousness on femal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marriage and childbirth",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6, no. 2, pp. 87-105, 2011.
- [38] M. H. Do,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awareness on marriage and childbirth to future marriage and childbirth",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6, no. 4, pp. 163-178, 2011.
- [39] S. S. Lee, "A study on impact of the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26, no. 2, pp. 95-140, 2006.
- [40] K. S. Sin, "A study on birth will of college students-targeting on Daegu-Gyeongbuk region university", Yeungnam University, Daegu, 2013.

박 성 희(Sung-Hee Park)

[정회원]



- 2006년 2월 : 고신대학교 고신대학원(간호학석사)
- 2009년 2월 : 고신대학교 고신대학원(간호학박사)
- 2010년 3월 ~ 2015년 2월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기본간호학, 노인, 건강증진

변 은 경(Eun-Kyun Byun)

[정회원]



- 2002년 8월 : 부산대학교 부산대학원 (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 부산대학교 부산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2013년 2월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건강, 정신장애인, 직업재활